

화림동 계곡

■ 코스 지도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정자와 계곡을 만나는 대표적인 선비문화 탐방로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정자문화의 산실 함양	
2	농월정	달을 희롱하는 정자	문화재
3	동호정	화림동 계곡 중 가장 큰 정자	문화재
4	군자정	일두 정여창의 발자취	문화재
5	거연정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정자	문화재

1. 구간소개

함양은 산수가 아름다워 달빛을 감상하기에는 최고의 고장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오늘 떠나 볼 화림동 계곡은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양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전국적으로 풍광이 뛰어난 자리에는 정자 문화가 발달이 됐는데요, 함양의 화림동 계곡을 ‘팔담팔정’이라 불렀습니다

본래 여덟 개의 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연정과 군자정, 동호정 등 세 개의 정자만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2003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소실 된 농월정도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양은 선비마을답게 어디를 가나 정자와 누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자와 누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정자와 누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방에 벽을 없앤 전통 건물로 1층으로 구성된 건물을 정자,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을 누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각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고, 정자는 혼자서 정취를 즐기 위해 만든 건물이라 누각이 정자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어서 가끔 변형된 건물이 있기도 합니다만 산속이나 계곡이 있는 건물의 경우는 정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조용히 명상과 풍류에 잠기는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림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화림동 계곡에 많은 정자들이 들어선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현재는 농월정이 있던 농월정 터에서부터 동호정을 거쳐 군자정과 거연정에 이르는 6.2km 구간은 나무 데크와 숲길, 논길로 이어져 ‘선비문화탐방로’란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지치면 잠시 그 옛날의 선비가 되어 정자에서 쉴 수도 있고, 넓은 반석에 앉아 계곡물에 손을 씻어도 좋습니다.

낮에는 ‘해를 덮을 만큼 큰 바위’라는 차일암에 머물다가 저녁이면 ‘달이 비치는 바위 연못’이란 뜻의 월연암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길은 특히 각각 적당한 거리와 평지의 흠길이 있어 걷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 발밑 와 닿는 흠길의 감촉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선비의 걸음으로 화림동 계곡을 거닐어 볼까요?

2. 농월정 터

사방의 아름다운 풍광에 시선을 빼앗기다가 도착한 이곳은 ‘농월정 터’입니다.

‘달을 희롱하다’라는 뜻이 담긴 농월정은 화림동 계곡에서도 가장 멋진 풍경 속에, 가장 아름답게 들어선 정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옛날에는 농월정이 함양을 찾은 많은 시인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나그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정자는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풍광만큼 여전히 바위에 앉아 어느 곳에 시선을 두더라도 감탄이 절로 납니다.

본래 농월정은 조선 선조 때 예조참판을 지낸 지족당 박명부 선생이 정계에서 은퇴하여 지은 정자로 평소 박명부 선생은 이곳에 머물며 학문에 전념하고 시회를 열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네요.

농월정 앞 바위에는 ‘지족당장구지소(知足堂杖之所)’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지족당 선생이 지팡이 짚고 놀던 곳’이란 뜻을 지니고 있죠.

농월정에서 물길이 지나는 계곡 쪽으로 더 나아가면 월연암이라는 거대한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너럭바위란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의미하며 ‘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반석 위로는 골이 깊게 패인 물길에 물이 찰랑거리고, 저녁이면 달빛도 찰랑거리죠.

2003년 불에 타 사라졌지만, 농월정에서 월연암 쪽을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달을 희롱하고 있는 풍경’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됩니다.

조선시대 남명 조식 선생은 농월정 앞의 풍경을 두고 이런 시를 읊기도 하셨다는군요

*“흰돌 흰구름 일천 낮이요,
푸른 침 엷히니 일만 배틀이네
여기 모두 거두어 가지 말라
내년에 고사리 캐러 오리라.”*

3. 동호정

이번에 도착한 곳은 동호정입니다.

동호정은 화림동 계곡의 정자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곡 또한 농월정 계곡과 더불어 아름다운 비경으로 손꼽히죠.

동호정은 조선 선조 때의 학자인 동호 장만리를 추모해서 1895년에 후손들을 중심으로 건립된 정자인데요, 장만리공은 임진왜란 때 왕을 등에 업고 의주에서 신의주까지 피난을 떠나 선조에게 충애를 받았습니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난 그는 주로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후손들은 장만리공의 호를 따서 ‘동호정’이라는 정자를 세우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동호정은 정확히 말하면 중층 누각건물인데요, 정자 내부에는 방이 있었던 것처럼 벽이 있구요,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은 통나무를 직접 깎아 만들어 자연스런 멋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멋은 누각 아래의 나무기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통나무를 틀어지거나 울퉁불퉁한 모양 그대로 대강 다듬어 사용하고 있죠.

구불구불 제멋대로 자란 원목을 그대로 기둥에 적용하는 방식은 일본이나 중국에선 보기 힘들죠. 한국인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잘 드러난 것으로 통나무 두 개를 파서 만든 계단도 울퉁불퉁한 기둥과 형제처럼 보입니다.

이런 자연스런 외관과는 달리 동호정의 구석구석, 즉 벽과 기둥, 천장 등은 모두 단청을 올려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겁니다.

동호정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나중에 가보게 될 군자정이나 거연정과 비교하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호정 주변에는 동호정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차일암’이라는 거대한 너럭바위바위입니다. 차일암은 1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될 만큼 평평하고 넓습니다.

과거에는 풍류객들이 이곳에서 술과 시조를 즐겼고요, 요즘에는 불제자들의 방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옛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가야금 연주 소리 그리고 풍류를 즐겼던 선비들의 시 읊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도 같네요.

4. 군자정

동호정에서 약 2km 남짓 국도를 따라 올라오다보면 서하면 봉전리에 위치한 ‘군자정’을 만나게 됩니다.

군자정은 앞서 갔던 동호정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동호정이 화려함을 자랑했다면 군자정은 자연의 운치가 있다고나 할까요?

울창한 노송과 온갖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 그야말로 고즈넉함이 더 한 정자입니다.

왠지 앞서 봤던 동호정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풍류를 즐겼다면 이곳에서는 혼자서 사색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정자의 이름 ‘군자’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여창 선생을 더 잘 알려면 함양 개평마을을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조선 초기의 문신이면서 실천유학의 선구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처가가 바로 이곳 ‘서하면 봉전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처가에 올 때마다 지금의 이 군자정이 세워진 ‘유영대’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데요, 후세에 그를 칭송했던 전세걸이라는 선비가 일두선생을 ‘군자’라 칭하고 그가 자주 찾던 이곳에 ‘군자정’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1802년이었다고 하니, 앞서 들렀던 동호정 보다는 80년정도 먼저 지어졌습니다.

건립 시기가 오래된 만큼 정자의 빛깔이 시간을 머금어 아주 그윽합니다.

또한 다른 정자들에 비해 작고 소박한 편이죠. 정여창 선생의 성품처럼 말이지요.

기둥은 모두 통나무를 사용했고 계단은 널빤지 형태로 된 재목을 사용했습니다.

본래 정자의 마루는 우물 ‘정’자 무늬로 짠 ‘우물마루’였다고 하는데, 몇 차례의 보수공사를 거치며 긴 나무판을 깎 ‘장마루’로 교체됐습니다.

군자정은 일두 정여창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답게 많은 선비들과 문인들이 찾아와서 시문을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지만 한 여름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선비들의 피서법인 ‘탁족’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 이 곳의 ‘영귀대’라는 너럭바위에 앉아 화림동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와 함께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다 잊기 위해 많은 이들이 ‘군자정’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화림동 계곡물에 발을 담가보는 것을 어떨까요?

5. 거연정

군자정에서 150미터 정도 걸어 오르면 퍼즐의 한 조각처럼 자연과 하나가 된 정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거연정’이죠.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의 ‘거연’이라는 의미처럼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옛 선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깃든 정자입니다.

거연정 주변에는 바위를 뚫고 자라는 거대한 나무들과 바위틈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기 충분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거연정은 자연경관을 한 눈에 소유했던 다른 정자들과는 달리 그냥 자연경관 속에 들어 가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고....

이곳에 도착해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거연정의 기둥을 보면 더러 주춧돌을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울퉁불퉁한 자연 암반을 그대로를 기초로 사용하고 있구요, 누각을 떠받치는 통나무 기둥 또한 자연적인 통나무를 대강 다듬어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자연친화적인 정자라는 것이죠.

고려의 마지막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킨 72명의 문신들 중 ‘채미헌 전오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인 ‘화림재 전시서 선생’이 1640년경에 세운 것이 ‘서산 서원’입니다. 서산서원 바로 옆에 자리에 역새로 지붕을 덮은 정자를 세웠는데 이것이 ‘거연정’의 시초입니다.

1872년 화림재 선생의 7대손 전재학 등이 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때 훼손된 서산서원을 복원하면서 지금의 ‘거연정’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화림교’라고 하는 아치형 구름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계곡과 기암괴석의 암반은 거연정의 운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화림동 계곡에서 정자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연이 불러 모은 초록빛과 달빛과 오래된 나무의 빛은, 물소리에 취하고 경치에 취한 나그네에게 선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네요.

쉽 없이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입에서는 어느 덧 시조 한 수가 절로 나옵니다.